



26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LG 트윈스의 경기, KIA 선발투수 양현종이 역투하고 있다.(사진 원쪽) · 26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LG 트윈스의 경기, 4회말 2시에서 KIA 1번타자 김선빈이 인터를 친 뒤 1루에 안착해 있다.(사진 오른쪽)

프로야구 개인 타이틀 경쟁 '치열'

KIA 양현종, 팀 동료 헉터와 다승왕 · 김선빈 · 김건우, 9리차 타격왕 전쟁

홈런 부분 SK 와이번스 간판타자 최정 독보적 1위

2017년 프로야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개인 타이틀 경쟁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프로야구는 시즌 막판까지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

1위 KIA 타이거즈와 2위 두산 베어스가 1경기 차다.

3위 롯데와 4위 NC는 2경기 차다.

순위만큼 개인 타이틀 경쟁도 치열하다.

올해 KIA의 1위 비결은 마땅 원투펀치 양현종과 헉터 노에이다.

지난 27일 현재 이들은 둘이서만 37승을 합작하는 괴력을 뽐냈다.

양현종이 19승(6패), 헉터가 18승(5패)을 올렸다.

헉터는 28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 서 시즌 19승에 도전한다.

양현종은 시즌 막판 1경기 더 선발 등판 할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이상훈(당시 LG 트윈스)에 이어 22년 만에 토큰 20승에 도전한다.

특히, 올해 양현종의 활약은 뛰어났다. 개막전을 시작으로 7경기 연속 승리투수가 된 후 시즌 중반엔 9연승을 달리기도 했다.

시즌 후반에 주춤했지만, 아직 20승 가능성이 남아있다. 올해 강력한 리그

과 함께 SK 구단 최다 홈런을 경신하고 있다.

최정은 장타율을 부문에서도 1위(0.69)를 달리고 있다.

타점왕을 놓고 삼성 라이온즈의 다린 러프(124타점)와 KIA의 최형우(120타점)가 접전이다.

현재 타율 1위는 KIA의 김선빈이다. 김선빈은 0.37타점에 높은 타율로 생애 첫 타격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남은 5경기에서 타율을 꾀리면 잘 한다면 사상 첫 9번타자 타격왕과 함께 1994년 이종범(전 KIA)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유격수 타격왕을 차지한다.

두산 베어스의 박건우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무려 3개월 간 4할이 훌쩍 넘는 타율을 기록하며 김선빈을 맹추격하고 있다.

현재 0.370의 고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박건우 역시 생애 첫 타격왕에 도전하고 있는 만큼 매 타석마다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홈런 부분에서는 SK 와이번스의 간판타자 최정이 독보적이다.

현재 46홈런을 기록하면서 50홈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팀이 3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50홈런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몰이치기를 노려볼만하다.

최정은 역대 3루수 최다 홈런 기록

MVP 후보다.

헉터(0.733)와 양현종(0.760)은 승률 부문에서도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타격왕 경쟁도 시즌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타율 1위는 KIA의 김선빈이다. 김선빈은 0.37타점에 높은 타율로 생애 첫 타격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남은 5경기에서 타율을 꾀리면 잘 한다면 사상 첫 9번타자 타격왕과 함께 1994년 이종범(전 KIA)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유격수 타격왕을 차지한다.

두산 베어스의 박건우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무려 3개월 간 4할이 훌쩍 넘는 타율을 기록하며 김선빈을 맹추격하고 있다.

현재 0.370의 고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박건우 역시 생애 첫 타격왕에 도전하고 있는 만큼 매 타석마다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홈런 부분에서는 SK 와이번스의 간판타자 최정이 독보적이다.

현재 46홈런을 기록하면서 50홈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팀이 3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50홈런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몰이치기를 노려볼만하다.

최정은 역대 3루수 최다 홈런 기록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11월1일 인천서 시작

전국 17개 시 · 도 도는 101일간 대장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이 오는 11월1일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시에서 출발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와 함께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을 슬로건으로 총 101일 동안 전국 17개 시 · 도를 도는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이 대회 개막 100일을 앞둔 11월1일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24일 그리스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성화는 내년 2월29일 개회식장에서 점화될 때까지 7500명의 주자와 함께 전국을 돌며 올림픽 정신을 나눈다.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은 대회 5대 핵심 목표인 문화 · 환경 · 평화 · 경제 · ICT 올림픽을 주제로 진행된다.

인천은 5대 테마로 진행되는 성화봉송의 출발점이자 첫 번째 지역으로, 경제를 테마로 한 성화봉송이 이뤄진다.

세계로 가는 관문인 인천에서의 성화봉송은 역동적인 한국 경제를 알리기 위해 진행된다.

세계 5대 해상 사장교(奈良橋 ·

Cable-Stayed Bridge)인 인천대교를 횡단하는 '한마음 성화봉송'이 진행된다.

인천대교에서는 101일 간 성화봉송 여정의 성공을 기원하며 101명의 주자들이 2018명의 서포터즈와 함께 달린다.

이날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는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태양 등이 참여하는 축하행사가 펼쳐진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 도仗를 환영하는 국민 행사를 인천공항에서 열린다.

대규모 성화봉송 행사로 인한 교통 통제도 시행된다.

11월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천대교 송도국제도시 방향 통행이 전면 차단되며 인천공항에서 송도국제도시로 이동하는 차량은 영종대교로 우회해야 한다.

조직위는 인천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우회로 안내 등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평창올림픽의 서막을 여는 성화봉송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의 친란한 역사와 문화를 모든 세계인들에게



17일 오전 서울 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 및 주자선발계획 언론설명회에서 홍보대사인 김연아가 성화봉송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알리는 것은 물론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는 유산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하나된 네이마르 · 카바니, PSG 챔피언스리그 2차전 뮌헨 격파

엄청난 돈을 투자해 스쿼드를 실찌운 파리 생제르맹(PSG · 프랑스)이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넘어섰다.

PSG는 28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B조 2차전에서 뮌헨을 3-0으로 완파했다.

셀틱과의 1차전을 5-0으로 이긴 PSG는 2연승으로 조 선두에 나섰다.

8골을 넣은 동안 한 골도 빼앗기지 않았다.

PSG는 전반 2분 만에 네이마르의 페스를 받은 다니 알베스의 골로 리드를 잡았다.

전반 31분에는 에든손 카바니가 역습 과정에서 두 번째 골을 만들었다. 홈팬들 앞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인 PSG는 후반 18분 네이마르의 세기 골로 승부를 길렀다.

최근 페널티킥 처리를 두고 충돌했던 카바니와 네이마르는 한 골씩을 맞았다.

불화살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경기장에서의 호흡에는 문제가 없었다.

득점 후에는 뜨거운 포옹으로 기쁨을 나눴다.

뮌헨은 PSG의 공세에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무너졌다.

1승1패로 조 2위다.

A조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는 CSKA 모스크바(러시아)와의 원정경기에서 4-1로 이겼다.

확실한 공격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로멜루 루카쿠가 멀티골을 넣었고 앤

서니 마샬이 1골2도움으로 활약했다.

스페인 원정길에 오른 C조의 첼시(잉글랜드)는 이탈리티코 미드필드(스페인)의 추격을 2-1로 따돌렸다.

첼시는 1-1로 맞선 후반 추가시간 미키 바죽이(미)의 극적인 결승골로 승점 3점을 챙겼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